

제123회

5월 14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23회 발명교실이 지 ...○
- ... 난 5월 14일 발명장 ...○
- ... 려관 연구실에서 개 ...○
- ... 최되었다. 매일 둘째 ...○
- ... 토요일 오후 1시30분 ...○
- ... 에 개최되는 발명교 ...○
- ... 실은 이 달에도 1백 ...○
- ... 여명이 참석하여 성 ...○
- ... 황을 이루었다. ...○
- ... 이날 발명교실에서 ...○
- ... 는 무림경공업(주) ...○

유압브레이크 시스템의 어큐물레이터

무림경공업(주) 이주형 사장

자동차에 있어서 제동 장치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ABS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퀴가 잠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 장치이며 위기시 생명을 보호해 주는 장치이다.

인간이 발명하고 만들어낸 물품은 항상 사용하기에 따라 이득을 주느냐 손실을 입느냐로 구분된다. 잘 사용하면 보배요 편리함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손해를 주고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자동차도 그중에 한 가지이

다.

자동차는 동력 전달 장치, 제동 장치, 연료 장치 등 여러 부분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첨단 제품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을 싣고 달리기 때문에 하나의 부품이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위험한 일이다.

여기 인간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구해 보자고 그리고 안전을 지켜 주고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발명가가 있다.

무림경공업(주) 이주형 사장이다.

자동차의 안전장치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안전벨트, 범퍼, 그리고 에어백 등 다양하게 있지만 뒤편 뒤편 해도 안

전장치의 생명은 브레이크 즉, 제동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브레이크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브레이크패드나 라이닝이 아니라 오일의 압력에 따라 좌우된다.

이 사장이 발명을 한것은 이 압력을 조절해 주는 장치이다. 이름하여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의 어큐물레이터 (Accumulator Brake System) 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말 그대로 바퀴가 잠겨져 차가 멈춰지지 않고 쭉 미끄러거나 빙그르 돌아버리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차례로 나누어 가볍게 밟아 주어야 했다. 그래서 급브레이크

발명교실

성공사례 등 발표

- ... 이주형사장의 성공사 ...○
- ... 례 발표에 이어 새생 ...○
- ... 각회 강신묵 회장의 ...○
- ... 발명의 발상기법에 ...○
- ... 대한 강의와 황중환 ...○
- ... 변리사의 「산업재산 ...○
- ... 권제도」에 대한 강의 ...○
- ... 와 토론이 있었다. ...○
- ... 발명가의 성공사례 ...○
- ... 를 간추려 소개한다. ...○
- ... (이두성記) ...○



크를 밟았을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유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퀴가 잠겨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 사장이 발명한 ABS브레이크는 바로 브레이크의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만 밟았다라도 가볍게 여러번 밟아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브레이크의 원리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고무풍선을 생각해 보자. 바람이 가득 들어 있는 고무풍선을 눌렀을 때 주둥이로 바람이 한꺼번에 빠지지 않는다. 조금씩 빠지면서 풍선은 다시금 팽팽하게 되어 오른다. 이주형 사장은 여기서 브레이크의 안전장치를 떠올리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세심한 관찰력의 결과였다.

이 사장은 '90년 2월에 첫 시제품을 출고 하였다. 특허출원도 서둘러 세계 각국에 출원 하였으며, 약 50여개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기술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거절하는 나라도 없었다. 심지어는 밥 한끼에 우리 나라 돈으로 70원씩 하는 나라에서도 ABS브레이크를 24만원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발명가 이 사장은 이 발명품의 우수성을 다음과 같은 성능으로 말하고 있다. 「80년대 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시속 100km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는 약 70여 미터 었읍니다. 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약 40여미터 까지 줄었습니다만 ABS브레이크를 사용했을 경우는 32미터까지 제동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히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 것이다.

이러고 보니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이익을 얻고 있다. 타이어의 손상이 줄어 들고 라이닝의 마모도 적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 준다는 점이다.

브레이크를 인간이 조작 하

는한 ABS브레이크는 최상의 수준임이 틀림없다. 자동차에 있어서 제동장치는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ABS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퀴가 잠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며 위급시 생명을 보호해주는 장치이다.

이 사장은 발명가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 주었다.

「발명의 시작은 모방에서 비롯될지 몰라도 우수한 발명일수록 모방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남의 권리를 요리조리 피하기 위해서 모방을 한다면 그것은 비열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 이다. 발명을 사랑하고 즐기며, 함께 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끼리끼리 어울리고, 자기것이 소중한 걸 알면 남의 것도 소중한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